

# 2천년대를 향한

## 우리 협회의 진로

모든 산업 분야가 첨단 과학화하고 있다. 어느 산업 분야든 간에

기획·생산·판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첨단화·과학화 되지 못하는 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타올에 의해 사고(思考)하고 움직이기 보다는 자율성이 한층 보장된 기틀 위에서 새로움을 꾸준히 추구하고 창출해 나가야만 무한한 생명력을 갖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도 곳곳에 남아 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적 발상과 행정은 적어도 2천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필연적으로 퇴색하고 말 것임이 자명(自明)하다. 이런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화될 치열한 시장경제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느 산업분야의 어떤 기업이든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업 활동전개와 체질변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시 행정관서나 단체들도 이에 상응하는 진일보한 서비스 행정 체제로의 전환과 체질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조합원이나 회원들로부터 회비나 받고 안이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타성에 젖은 것으로써 앞으로는 회원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시대가 오고 만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협회도 업계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새로운 모습·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 협회는 식품 및 환경 위생업종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한 성과라든가 월간베이커리를 발간하여 업계와 협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헌한 바 매우 커 자부심과 자만심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열린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예산 총규모가 10억원대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은 그간 우리협회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안주(安住)할 수 만은 없으며 지금보다 다양하고 독창성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로 영상(映像)사업을 들 수 있다. 선진기술을 영상화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앞선 기술을 손쉽게 습득하고 많은 이에게 접할 수 있도록해 시간적 낭비와 경비 절감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우리 업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제품들을 품종별로 묶어 단행본화하고 이를 회원 업소와 업계에 내놓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일본과 같은 경우 단행본 등 제과 제빵 서적이 무려 400~500여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이러한 상황으로는 업계가 선진화할 도리가 없다는 관점에서 각종 제과·제빵 서적을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동안 협회 운영은 대개의 경우 행정 관서의 관행에 준한 운영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그와 같은 운영 방식을 떠나 이 나라, 이 사회 그리고 업계와 회원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도 선진 대열과 어깨를 나란히 해 나아갈 수 있는 긴 안목의 새로운 발상과 사업전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2천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점에서 협회나 회원 모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결코 게을러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